



신임 이사장 인사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제36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속기협회 제8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홍순관입니다. 협회 사정으로 인해 인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우리 대한속기협회에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과 회원의 대표로서 긍지와 사명감으로 협회 활동에 정진해 오신 역대 회장님과 부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뒷바라지에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협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께 혹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든든한 현 집행부와 함께 앞장설 일은 앞장서고 뒤에서 밀어야 할 일은 밀면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협회는 회원의 권익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주변의 높은 벽만을 타하지 않고 협회발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집입니다.

회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의 어려운 여건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회원 여러분의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불만만 털어놓는다면 더 이상의 전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법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 귀함과 천박함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작은 벽돌 하나로 시작했듯이 세상의 어떤 큰일도 애초엔 미미한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면한 어려움을 멋지게 극복해 냈을 때 그것이 협회를 이끌어가는 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겼으면 합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 들겠습니다. 저와 집행부가 바로 가고 있을 때는 격려를 주시고 혹시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될 때는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속기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다양한 열린 공간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理事長 洪 淳 寬

제36회 정기총회 소식

협회는 2003년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 2002년도 결산과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새로운 이사장과 감사를 선임했다.

이동준 총무부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국민의례, 성원보고에 이어 이희규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희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월드컵 4강 신화로 얻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우리 모두 꿈을 이루자는 말과 함께 기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속기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신회동 이사장이 회장을 대리하여 주재한 회의에서는 2002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 등 부의안건을 다루었다. 회원들의 별다른 의견 없이 2002년도 결산과 200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일신상 사유로 사직한다는 이사장의 제안설명이 있는 후 임원선임 방법에 대해 최광석 회원이 집행부의 복안을 먼저 듣고 찬성하면 박수로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집행부는 홍순관 이사를 추천하였으며 전 회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신임 이사장은 협회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회원들의 협조와 참여로 해결해 나가자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다음으로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 최성주 회원, 유순태 회원을 감사로 추천하자는 최윤정 회원의 동의에 전 회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최성주 회원과 유순태 회원이 신임감사로 선임되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36회 정기총회는 무사히 끝을 맺었다.

제193차 제194차 이사회 소식

◁ 제193차(집행이사회) ▷

협회는 금년도 국고보조 예산확보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바 늦었지만 지난 9월 26일자로 국고보조금지원이 결정되었기에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이사회가 10월 9일 오전 11시에 집행부이사 중심으로 국회 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긴급히 개최되었다.

먼저 총무이사로부터 ▲지방의회속기워크숍 참가(03.6.21-03.6.22) ▲한글속기(컴퓨터분야)자격검정 전문가회의(대한상공회의소 주최)참가(03.9.25)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03.9.26) ▲법원속기사 모임 발족(03.9.27) 등의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이어 부의안건(2003년도 사업집행에 관한 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사장을 비롯한 각 부 집행이사들은 4/4분기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일단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각 부별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사회를 열기로 합의한 후 11시45분에 산회하였다.

◁ 제194차 ▷

월 일 오전 시 분에 각 부별로 마련한 년도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국회 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194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속기학술세미나(사업부), 속기학술연구(연구위원회), 속기계및소식지발간(홍보부), 전국

속기경기대회(자격심사위원회), 속기실무워크숍(총무부), 속기정보화사업(회원부)에 대해 소관 이사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각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속기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는 장소, 날짜, 주제선정 등을 놓고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는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세미나 개최일시는 2003. 12. 20(토) - 2003. 12. 21(일), 장소는 단양 대명콘도로 하며 자세한 세부일정은 이사장과 사업이사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대로 2003년 12월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후 11시 50분에 이사회를 마쳤다.

각 부 소 식

1. 사업부

- 속기학술세미나

사업부는 12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충북 단양군에 있는 대명콘도에서 2003년도 제11회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마다 6월에 개최되던 세미나가 올해는 예산 관계로 12월에 개최되는데 세부일정은 동봉된 속기학술세미나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02-788-2156)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2. 연구위원회

- 회의록편람해설집 발간사업

연구위원회는 앞으로 발간될 '국회회의록작성편람'의 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휘 빈도수 조사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 자격심사위원회

- 속기경기대회

2003년도 제11회 속기경기대회가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전산교육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대회 접수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한속기협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에서 받으며 세부사항은 협회 자격심사위원회(02-788-2372)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4. 총무부

- 정기업무보고와 국고보조금 확정

총무부는 2월 27일 2002년도 결산과 200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기업무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문광부에서는 9월 26일 협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정·교부하였다.

5. 회원부

- 법원 속기사 회원가입

전국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 명의 속기사들이 대한속기협회에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법원 속기사들의 협회 가입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안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다같이 한마음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소식지및속기계 발간

홍보부는 소식지 제13호 발간과 함께 제11회 속기학술세미나 일정을 여러 회원들에게 홍보했으며 지난해 발간된 속기계 제39호에 이어 현재 제40호를 준비 중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 소식

- 신임회장단 선출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는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단으로 회장 김영서(대구 달서구의회), 부회장 이현숙(용인시의회), 운영부장 윤태원(윤컴시스템), 총무국장 신종식(대전시의회), 사업국장 손상범(전주시의회)을 선출하였다.

- 속기워크숍

지난 6월 21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주 유스호스텔에서 지방의회속기사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100여 명의 속기사가 참여하였고 협회에서는 이주성 회원이사, 권영찬 총무이사, 이동준 총무부장이 참석하였다.

회 원 동 정

♡감사합니다.

· 최성주, 조영기, 고경효, 이순영, 안기철 회원님(국회사무처)께서 발전기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승진/임용/전보-축하합니다.

- 홍순관 이사장님(국회사무처) : 2급으로 승진(2003. 6),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보임(2003. 8)
- 고경효, 이순영, 안기철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사무관으로 승진(2003. 5)
- 백순정, 김미라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사무관대우로 승진(2003. 7)
- 이해정, 이봉선, 최윤정, 강지유, 정숙, 정영희, 이해정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주사로 승진(2003. 11)

- 윤미영, 이수경, 최혜련, 김지숙, 박소연, 한연미(국회사무처) : 속기서기로 승진(2003. 9)
- 김경재, 김윤정, 김현진, 홍효민, 고영린, 성지연, 제신지, 황유진(국회사무처) : 속기서기보시
보로 임용(2003. 8)
- 조미영 회원(대구광역시의회) : 신규 임용(2003. 5)
- 원은주 회원(원주시의회) : 신규 임용(2003. 5)
- 김상희 회원(영월군의의회) : 신규 임용(2003. 8)
- 이정숙 회원(대구광역시의회) : 신규 임용(2003. 8)
- 조영심 회원(서구의회) : 신규 임용(2003. 6)
- 최재숙 회원(대구 동구의회) : 신규 임용(2003. 10)
- 윤미영, 조희경 회원(대구 수성구의회) : 신규 임용(2003. 9)
- 정경희 회원 : 대구 남구의회로 전보
- 김기분, 박영희 회원(대구 수성구의회) : 행정직으로 전직

♡교육/연수·수고하셨습니다.

- 고경효, 이순영, 안기철 회원(국회사무처) : 신입관리자 교육과정 이수((2003. 5)
- 조미경, 김기선, 서현숙, 최윤정(국회사무처) : 국외자율훈련

♡퇴직/휴직·수고하셨습니다.

- 신희동 회원(국회사무처) : 퇴직(2003. 6)
- 박금선 회원(국회사무처) : 퇴직(2003. 7)
- 김은화 회원(대구 남구의회) : 퇴직(2003. 9)
- 이경숙 회원(국회사무처) : 육아휴직(2003. 11)

♡결혼/출산·축하합니다.

- 주정순 회원(국회사무처) : 결혼(2003. 5)
- 정영희 회원(국회사무처) : 결혼(2003. 6)
- 신지애 회원(원주시의회) : 여아 출산(2003. 7)
- 정향인 회원(국회사무처) : 결혼(2003. 8)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www.steno.or.kr에는 협회소식 및
 속기계·소식지 등 협회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가 있어요!!!
 홍보부에서는 속기계(42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김영중(+태 02-788-2371)에게
 연락 주세요.